



있진 않아. 하지만 수어를 배우고 나서 가족들에게 내가 배운 수어 몇가지를 알려줄 때 가족들이 신기해 하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볼 때 '수어 배우기 참 좋았다.'라는 생각을 하며 뿌듯함을 느껴. 또 수어를 배우며 내가 아는 동물을 수어로 해봐도 해. 그러다가 모르는 수어는 검색을 해서 배우. 유치원 재롱잔치 때 한글을 수어로 표현해서 다 같이 발표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배웠던 수어였어. 하지만 지금 내가 자발적으로 수어를 배우니 수어 한 동작의 의미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어. 수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언니를 만나 수어를 알려주고 싶어진다. 난 초보이지만 언니에게 좋은 수어 선생님이 되줄게. 언니가 수어를 잘하게 되면 같이 대화하자.

내가 언니에게 첫번째로 알려주고 싶은 수어는 '산책을 듣는 시간'이야. 언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긴 여행에서 돌아온 것 같다고 했지. 그리고 더 긴 여행의 시작으로 한민씨와 '산책을 듣는 시간'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잖아. 신청자의 사연을 묻지 않고 오직 그들의 산책을 들어주는 사업이 있다는 것이 신기해. 난 나의 산책을 들려주고 싶어. 내가 매일 걸었던 길이지만 을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주일에 한번 걷는 길을 산책장으로 정해 나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

보며 나의 산책을 들려줄게. 내가 어떻게 나의 산책을 들려주든 언니는 들어줄테니까. 산책할 때 보자. 나의 산책을 들려줄게.

산책을 듣는 시간 신청서	
성명	이예빈
성별	여
나이	13
희망 날짜	2020. 8. 13
희망 장소	학교 가는 길
희망 산책자	☑ 정수지 2. 박한빈

2020년 8월 7일  
— 예빈이가

추신: 신청서 꼭 확인해줘.

